

한국인의 비동조 의복행동에 관한 사례연구

임 선 희* · 정 찬 진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개인의 태도 및 행동 변화에 대한 사회심리적 영향력에 관한 연구는 동조 및 비동조의 개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동조현상에 대해서는 동조행동의 발생에 초점을 맞추어 규범적, 정보적 동조의 차원에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비동조현상이 갖는 사회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연구가 많지 않다.

비동조행동은 단순한 거부행동이 아닌 “진정한 독립”과 “거역”이라는 이질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의복행동을 설명할 때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비동조 의복행동을 단지 독립과 거역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동조 의복행동에 대하여 경험적 자료를 통해 그 유형을 분류함으로써 의복행동의 다양한 비동조현상을 설명하고 또한 비동조의 심리적 발생원인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비동조 의복행동은 사회규범과 관찰자의 주관적 판단으로부터 달라지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비동조 의복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들을 개별인터뷰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비동조 의복행동 유형은 의복착용동기에 근거하여 분류되었고, 비동조 의복행동의 유형과 그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개성추구 유형

새로움을 추구하거나 독특함을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개성을 추구한다. 또한 타인의 시선 받기를 즐기며, 개성있는 개인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2. 독립적 유형

사회의 의복규범이나 유행에 대한 무관심으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만의 의복규범을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적 유형이다.

3. 저항적 유형

사회의 규범에 대한 저항의식을 갖고 의복 및 외모를 통하여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고자 한다.

4. 동일시 추구 유형

주문화와 구별되어지는 특정한 하위문화집단에 동일시하고자 한다. 이때 동일시되는 대상 집단은 소속집단이거나 소속되고자 하는 회귀집단이고, 의복 및 외모는 대상집단의 그것과 동일시된다.

5. 문화집착 유형

문화적 차이 및 상황적, 공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의복 규범을 고집하는 유형이다.

6. 역할수행 유형

자신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의 의복규범에서 벗어난 독특한 외모를 형성한다.